

Ⅲ.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黃性模 / 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 <사회학>

국민소득이 2천 달러 정도 될 때가 이데올로기적 문제들이 가장 많이 표출된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데올로기란 가난에서 오는 문제들을 고상하게……

대한치과의사협회 사회정화추진위원회는 건전한 사회기강 조성과 보다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오늘을 움직이는 지성인들의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될수 있는 주목같은 글들을 모아 앞으로 씨리-즈로 게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사회정화위원회

나는 젊었을 때부터 지식인은 약한 존재라는 말을 들어 왔다. 그 뜻을 생각해보니 「실천(實踐)」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사실상 지식인들은 논에서 논쟁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손에 기름칠하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몸(肉體勞動)을 쓰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그러한 사람들을 우선 대학 졸업생들이라고 본다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같은 나이의 청년들 중 30%에 가깝다고 한다. 3분의 1이 좀 못되는 젊은 사람들이 임금노동(賃金勞動)을 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한편 지식인의 실천이라고 할 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특정 이데올로기로써 의식이 경직화(硬直化)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언하고 글을 쓰고 미래사회를 자기논리에 따라서 상상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경제가치의 생산이라는 것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자본과 기술과 노동이라는 생산요인의 현실적 기능이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상당히 오래된 일이지만 어떤 책에서 이런 대목을 읽은 일이 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위해서 많은 사상적실체(思想的實體) - 그 각기는 분할을 불허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통일체로서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결과를 분비(分泌)한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 - 들이 통제가능한 여러 요소로 분해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이말은 깊이 새겨 불만한 것이다. 「주의」라는 통일체를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 요소로 분해됨으로써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살아있는 통일체로서 존재하지 않게되

고 따라서 여러 결과를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있던 것들, 또는 만들어진 것들이 평범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만 해석해야 했던 것이 이제는 과학적 방법이 그 하나하나를 분해해서 사회생활의 실체에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가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살아있는 거대한 실체인 것처럼 믿고있는 것이 지식인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현실을 긍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평범한 과학적 방법을 소유하고 가능한 곳이면 어디라도 적용하고 응용한다. 막스 베버라는 석학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상황속에서 일찌기 정치인의 심정윤리(心情倫理)와 책임윤리(責任倫理)를 구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바 있다. 결국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데올로기라는 가치만을 신앙처럼 믿음으로써 「세상이 불타버려도 상관없다」는 윤리의식(倫理意識)(오늘날의 말투로서는 「意識化」라고도 할수 있다)만으로는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2차대전 후의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데올로기와 과학」이라는 테마로서 제기되었고, 또다시 과학까지도 이데올로기의 분비물(分泌物)로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고 열렬한 「실천」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오히려 과학이 공업시대의 사회생활의 구석구석을 규정, 통제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오랫동안 변혁을 추구해왔던 사상이 사회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의 적용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됐다. 누구

가 진보적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진부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사실상 냉정하게 관찰해 보면 지금까지 모든 사상은 국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점수를 짜게 매겼던 것이 사실이다. 무정부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주의도 그랬고 사회주의는 더 심했다. 그 이유는 국가를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과 「해방」을 억누르는 존재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혁명 후의 소비에트국가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 국가에 대해 언제나 만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이 점만을 보더라도 원래 사상가로 출발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일단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을 절대적으로 유지, 확대해간다는 명확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산국가 내에서는 국가가 얼마만큼 인민대중의 생활구석구석까지 지배 통제하고 있는가에 이제야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그들에게는 국가란 절대선(善)인 것이다. 과거의 국가에 대한 비난은 그들은 그들이 국가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의식화(意識化)의 결과라고 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이란 구제(救濟)의 여지가 없는 이론과 현실 사이의 모순속에 살 수 밖에 없는 숙명(宿命)을 지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현대의 여러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사회주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말하자면 사회주의란 그 이데올로기 성(性) 때문에 끊임없이 비합리적(非合理的)인 통제를 인민대중에 대해서 부과하면서도 국가의 현실유지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과학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어떤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따라서

만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라든지 사회주의적 지상천국 따위는 누구도 믿고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사상이다. 그러니까 사상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사상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지식인의 「실천」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현실에 대한 판단중지(判斷中止)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문명 속에서 어떤 과학적 분석·예측·계획·조정·통제없이 해결할 수 없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데올로기라는 「가치」는 과학적 방법의 적용범위가 확대하면 할수록 그 존재가 흐려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발전이 촉진되면 될수록 이데올로기적 문제는 사라진다는 것일까. 국민소득이 2천달러 정도가 될 때가 이데올로기적 문제들이 가장 많이 표출된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데올로기란 가난에서 오는 문제들을 고상하게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데올로기적 진리를 찾아 헤매왔지만 그것이 결국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한다면 갑자기 허탈감에 빠진다.

과연 배부르면 사상은 없어지는 것인가. 인간이란 그러한 정도에서 자족(自足)하는 존재일까. 아니다 아니다하고 맹렬하게 나의 마음속에서 항의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 항의의 소리는 분명 신(神)의 소리는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지만 과거에 사상의 이름 밑에서 들어왔던 소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정화추진위원회 제공)

내가말은 작은일도 하고보면 나라발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사회정화추진위원회)